

특별기고

월간 양계 창간 13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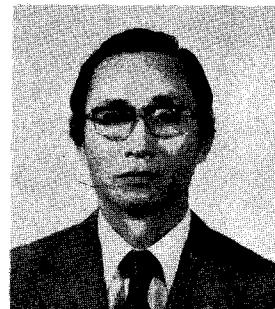
—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 질적인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생산비 절감 필요/이재근
- 훗날을 위하여 양계업계의 구심점 적립해야 /이창구
-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발전방안계획 수립위해 양계인 단합해야/지설하
- 한국의 축산업은 역시 양계업 중심이어야 /최진호
- 지방적으로 조직에 참여해 협력되고 단합된 힘 과시해야/원용택

질적인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생산비 절감 필요

이재근

고대농대교수, 농학박사/
한국기금협회 회장 역임



“월간 양계” 지 창간 13주년 을 중심으로 축 하한다. 저간 경영상의 무수한 애로를 극복하면서 면면히 이어 발전하여, 이제는 많은 양계인들의 다정한 벗으로서의 위치를 굳하게 되었으니 대견하기 그지 없다. 저간 양계협회 당국과 실무진들이 겪어온 노고에 대하여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보낸다.

“양계”지와 더불어 우리나라 양계업도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 채란 양계 분야에서 대형기업화와 더불어 부분적 기계화의 추세에 있으며 또한 전반적으로 영세업자의 불리에 대신하여 기업화 경향으로 구조가 변경되어 불황극복의 내구력이 현저히 높아졌음은 양계산업에 있어서의 발전의 일면이라고 보아야겠다. 그러나 한편 브로일러 양계산업에 있어서는 구태의연하게 영세성과 전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서 인테그레이션 방식의 도입등 과감하고 시급한 혁신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양계업의 질적인 고도성장을 위하여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단견을 피력코자 한다.

양계업의 공해예방

일반 농가에서도 쾌적한 문화적인 생활을 영

위코자하는 염원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어서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냄새, 파리, 모기 등에 큰 피해의식과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대도시 근교 등 양계농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계분처리 시설과 관리의 과학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전답의 계분오염, 하천식수의 오염 등 자연의 보존과 공해의 예방대책이 시급히 연구되고 확립되어야 우리 양계업 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으며 또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행정당국에서는 양계장 설치허가 조건으로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어서 행정의 안일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거와의 거리, 공해방지 시설, 관리의 과학화 등 양계장 설치요건이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파리의 발생과 만연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좁은 국토안에서는 양계장을 설치할 곳은 거의 없어질 것이다.

다음은 계란과 계육의 무공해 대책에 대한 관심이다. 항생제, 기타 사람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약제의 사용은 적어도 출하 일주일 전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어취가 심한 어분의 배합은 계란이나 닭고기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질 좋은 것으로 2~3% 정도 사용하도록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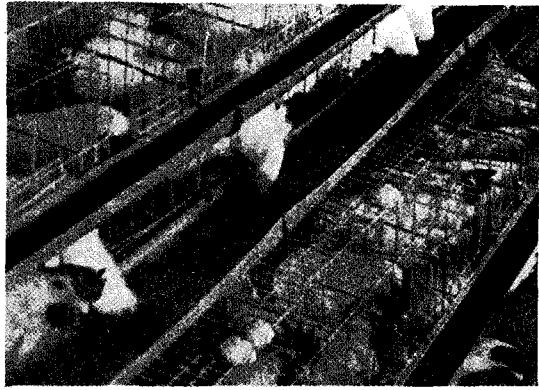
이 앞으로의 소비증대에 대비하는 자세라 하겠다. 또 이것은 어분의 참량에서 얻어지는 사료비의 절약도 될 것이다. 난좌의 세척과 소독 또는 1회용 종이 난좌의 사용, 계란의 무공해적 세척, 포장판매, 생산일자의 기입, 냉장저장등으로 발달된 주부들의 위생관념을 충족시키도록 서둘러야 하겠다. 현대식 육계 처리의 전국화 및 유통의 근대화도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

생산비 절감대책

양계 생산자의 측면에서 앞으로 심각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발전하려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첫째로 경영규모의 적정화 문제이다. 경영규모가 영세하면 생산비는 높아지게 마련이고 불황을 이겨낼 힘이 약하게 되어 경영의 불안속에서 재산형성이 어렵게 된다. 시설이용 효율의 증대, 노동생산성의 증대 등을 감안한다면 채란계 2만수 이상, 브로일러는 연 4만수 이상의 규모가 적정수준이라 하겠다. 둘째로 시설의 기계화를 서둘러야겠다. 계사 1동을 폭 12m로 하여 최소 8,000수 이상 수용하도록 설계하고, 계분 자동제거 장치, 자동 급수장치, 사료 자동급여장치, 자동 집란장치 등에 대비하여야 되겠다. 또 가스 육추기의 이용, 세란, 선란기의 이용등으로 성력화(省力化)에 최선의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러한 기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산란용 케이지의 제작 및 설치도 개선되어야 하겠다. 다수수(多首數) 수용식으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겠으며 계사에 설치할 때 수평이 잘 맞게 하여야 된다. 따라서 계사바닥 콘크리트가 수평을 잘 갖추도록 유의해야 된다. 또 사료저장용 옥외빈(bin)의 설치를 서둘러야 되겠다. 사료를 비포장으로 운반저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포장에 필요한 경비만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상하차 비용, 저장중의 쥐의 피해, 파포 등도 예방하여 결과적으로 막대한 경비를 절약하게 된다. 다만 일정한 중량으로 포장된 사료를 급여할 경우에 비하여 그날 그날의 사료 소비량 특

경영규모가 영세하면 생산비는 높아지고 경쟁에서 탈락되고 말 것이다. 시설이용, 효율 증대와 노동생산성의 증대 등을 위해서도 적정규모의 양계업은 꼭 필요하다.

히 1수당 사료 섭취량을 점검하는데 주도 면밀한 방법과 유의가 뒤따라야 되겠음을 강조한다. 매일의 1수당 사료섭취량의 정확한 점검은 양계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브로일러 양계 분야에 있어서의 '인테그레이션방식(수직통합경영방식)'의 도입 문제이다. 이는 브로일러 생산자측은 계사, 관리기구, 노력 등만 제공하고 병아리, 사료, 의약품, 도계처리 등은 기업체측이 분담키로 하는 계약생산 방식으로서 생산자에게는 계약조건에 따른 금액이 기업체로부터 지불된다. 이 방식은 선진 외국에서 이미 널리 실시되어 브로일러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방식이 브로일러 생산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동남아 지역의 태국에서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이 방식의 특징은 대자본가와 영세한 생산자가 통합함으로서 브로일러 생산업이 대기업화될 수 있는 점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잘만 운영된다면 브로일러 산업을 획기적으로 안정,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시책당국, 사료, 종계, 약품, 도계처리업계 등의 연구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넷째로는 양계농장의 생산수단의 과학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양계경영에서 그 성패 및 경영수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하겠다. 생산기술의 과학화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일상관리문제라 하겠다. 육추, 육성, 산란 각 과정에 있어서의 경영주의 지식수준과 지속적인 합리적 관리 여부는 닭의 생산능력을 최대로 발휘시키느



냐의 여부를 좌우한다. 육추, 육성 과정의 각 단계에 표준발육을 하고 있는지, 산란과정의 각 단계에 표준이상의 산란을 하고 있는지, 사료 섭취량 체중에 이상이 없는지 매일 정확히 체크하여야 하겠다.

전염병 예방 프로그램의 정확한 실천, 점등관리에 대한 이론의 터득과 프로그램 실천의 철저, 육추, 육성, 산란 각 과정에 있어서의 매일의 철저한 관찰과 도태등은 가장 중요한 관리지침이라 하겠다. 과거 필자가 경영하던 양계장에서 책임지고 8년간 봉사해 준 한 청년이 있다. 그는 1만수 이상되는 산란계의 각 개체의 특성을 다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철저하고 성실했다. 그는 6년전에 독립하여 소규모의 브로일러겸 채란양계를 시작하였는데 현재는 저간의 계속된 불황에도 불구하고 채란계 2만수를 확보하고 또 최근에는 6,000만원 상당의 땅을 인근에 더 확보했단다. 남들은 양계하여 모두 도산하고 있다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니 철저한 관리가 가져다 준 성과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영주의 지식수준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철저히 실제로 옮기느냐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시책 당국 양계협회의 담면과제

(1) 산란계 부분의 계획생산이 강력히 요구된다. 3,000수(?) 이상의 신규양계장 설치를 억제하여 필요한 물량만 계획적으로 생산하여 양계업의 안정을 기해야 되겠다. 양돈분야에서는 이미 양돈경영안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양돈협회의 움직임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양계분야의 퇴영성에 아쉬움을 금치 못하겠다.

(2) 양계안정기금이 설정 운영되어야 하겠다. 양계업자들이 분담하여 소비확대를 위한 연구 선전 등에 노력을 투입하여야 되겠다.

(3) 양계협동조합의 지역별 설치가 필요하다. 계획생산에 대한 실무, 계통출하, 안정기금의 징수, 공동구매 등 지역 단위로 설치되어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4) 소비유통구조의 근대화 촉진

(5) 영세 부화업 및 사료제조업의 과감한 도태

(6) 양계장의 분산화 시책, 특히 경기도 등 밀집한 양계지대는 전염병 등 만연의 우려가 크다. 장래를 위하여 시책적인 분산책이 연구되어야 하겠다.

(7) 농수산부에 양계과의 설치가 철실히 요구된다. 양계시책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적극적인 시책을 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의 설치가 시급하다. 정부의 양계산업에 대한 효율적 투자인 동시에 봉사가 될 것을 확신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한양계협회 발행

시세 속보

구독문의 ☎ (752) 3571~2